

英才教育도 좋지만

權 寧 大

〈學術院元老會員〉



해방당시 우리 과학계는 거의 맨손으로 출발하였던것이 그동안 6·25동란까지 치러가면서도 용케 이만큼 자라났다고 자위하고싶어진다. 선진과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은 흔히 그때문에 물질주의, 금전만능주의가 판을치고 오늘날과 같이 인간성이 메마른 각박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들을 잘한다.

그러나 나는 요즘같이 과학의 고마움을느껴본적이 없다. 그동안 즐기차게 약장사 모양으로 과학계를 대변이라도 하듯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다닐때, 정치가나 행정가나 기업가들은 말할것도 없고 과학자 기술자들조차도 방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무관심하던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실로 감개무량하다.

그런데 이번에 이산가족찾기 생방송이 시작되자, 30여년의 원채 오랜 세월동안의 한

이 맺혀있었던 탕도 있긴하지만,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전국의 방송망이 완비되어 있을뿐 아니라 미국과도 인공위성을 통한 동시방송을 할 수 있을정도로 우리 기술이 발달된데서, 이산가족 당사자들은 물론 이려니와 전국민이 텔레비전을 보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텔레비전이라는 과학 문명의 이기의 고마움을 절실히 느꼈으리라 믿는다.

이제는 더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과학을 왜 배워야 하고 왜 익혀야 하는지를 모두들 납득하였을줄 안다.

우리 과학자들도 그동안 많은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제법 선진국의 과학자들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출중한 인물도 적지않게 길러졌지만 지금같이 정보사회의 물결이 노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때 우리도 하루빨리 저 산업사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도 고급두뇌의 양성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입안된 것이 "과학영재" 교육 안이요 또 이외는 별도로 이미 설립된 것이 과학고등학교인줄 안다.

그중 과학고등학교는 언뜻 체육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와 흡사한 학교같이 들리나 과학영재는 체육이나 예술과 같이 집중훈련교

육으로 소질이 발휘되거나 신장되는것은 아니며 기능공양성과도 또 다르다. 이 안은 아무래도 무언가 잘못된 발상에서 출발한 것 같으며 후일 대학으로 진학할때 희생되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

본래 영재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質과 德으로 교육하는 가운데서 발굴되는 것이다. 물론 과학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보다 적은 인원으로 편성된 학급에서 실험을 통하여 충실히 지도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실시되어야할 과학교육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을 굳이 과학고등학교라 이름짓고 특별히 영재교육을 위한 방안이라고 내세울 이유는 없다. 실험을 통한 과학교육을 하지 못하는 고등학교가 아직도 많은 현 실정하에서는 그나마 과학고등학교를 몇군데나마 세우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고 할지 모르나 그것은 詭辯에 지나지 않는 말이다.

다음에 고등학교과정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본인의 재능에 따라 단축교육을 할 수 있게 한 과학영재교육방안은 비교적 합리적이며, 교육을 담당할 한국과학기술원이 대학원과정의 교육기관인 까닭에 교수진이나 시설면에서 충분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의 재능을 일찌기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계속하여 학교과정에서도 특별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天賦的인 소질을 발휘하지 못한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로 콩나물교실에서 충분한 지도를 받을 수 없었고, 둘째로 태반의 학교가 실험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며, 셋째로 대학입시경쟁의 強迫으로 정상적인 학습이 불가능했을 뿐아니라 그나마 진학한 대학은 이미 꿈과 낭만이 깃들던 "엘리트"단계는 벗어난 지 오래고 量産의 "대중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서 이런 평준화된 대학에서 영재를 기해진다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지난날 우리들은 암산도 척척이요, 영어나 한문도 줄줄 읽을줄아는 IQ가 200도 넘는 소위 신동이라는 어린이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다. 그런데 그들의 後日譚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모두들 신동이란 말에 眩惑된 부모의 허영심의 제물이 되고 말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영재"란 말을 너무 함부로 쓰는것 같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계획되고 있는 영재교육과정 역시 특별한 과정을 두고 복치고나팔볼며 "영재"란 특제품을 "제조"해 낼 것이 아니라, 단지 고등학교과정과 학부과정을 병설할 수 있도록 학제를 고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월반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영재가 발굴될 것이다. 항상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것이 없는 법임을 명심하는 것이 현명할줄 안다.

앞으로 우리가 제3의 물결에도 휘말리지 않고 살아남을 선진조국으로 도약을 하려면 불가피 과학기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다급한 실정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조금한 나머지 영재교육방안도 나온 모양이나, 요는 그런 교육방안 자체보다 "20대 박사"를 제조할 공장을 세우려는 발상이 문제이다. 도대체 박사가 무엇이길래 빨리만 만들면 그것이 곧 영재의 증명서가 되는줄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치게 박사를 좋아한다.

"대학신문"을 본즉 "국립서울대학교, 그 영광의 위기"가 심각하게 진단되고 있다. 과외열풍을 막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의 입학시험이 폐지되고 영재교육이 부정되었는데, 새로히 영재교육기관을 대학밖에 두려고 하는 발상은 비교육적이라고 논박하고 있다. 영재교육도 좋지만 대학교육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영재교육인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